

내수용 농약 절대부족

일본 중국서 수입 사용

이 글은 최근 발간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金泳根박사팀의 연구보고서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에서 농약분야만 발췌 수록한 것이다. <편집자註>

생산실태

북한의 농약생산 실태를 보면 1960년대 초부터 농업의 화학화 구호아래 화학비료와 더불어 농약 생산에 주력하였다.

현재 2.8비날론연합기업소(함남 함흥시)와 化城化學공장(함북 化城郡) 등에서 제초제(PCP), 살충제(BHC, DDT), 살균제(포르말린) 등 20여종의 농약을 연간 8천여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흥남지역에 소재하는 본궁 화학종합공장, 흥남제약공장 등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400여종에 연간 3만여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농약은 제조시설 및 합성 시설이 낙후되어 BHC, DDT 등 선진국에서는 인체유해를 이유로

생산 중단한 살충제를 생산하는 한편 부족되는 최신 농약들은 일본, 서독 등지에서 연간 1만여톤 가량 추정되는 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975년까지 일본으로부터는 많은 양의 농약을 수입해왔다.

최근 조업한 함흥 제초제 공장은 1986년 8월 김일성의 함남도 현지지도시 농약증산책의 일환으로 제초제 공장건설 지시에 따라 기존 2.8비날론연합기업소 내에 건설된 것으로서 DCPA(제초제의 일종)와 혼합제초제, 씨마진을 연간 3천여톤 생산하여 논·밭의 각종 잡초 제거에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씨마진은 옥수수밭의 제초제로 주로 사용).

농약은 북한이 1981년 화학적 방법으로 김매기를 한 논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초제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식물생장조절제의 생산 및 보급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매기에 소

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초제를 공급하고 생장조절제 및 촉진제의 적기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농약생산 능력은 최근에 조업식을 가진 2.8비날론연합기업소내 제초제 공장으로 연간 8천톤에서 1만 1천여톤으로 증가, 일부수입에 의존하던 제초제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소비실태

북한의 내수용 농약이 부족함은 앞의 생산부문에서 이미 규명되었다. 현재 농약 수출실적은 전무하며, 수입실적만 나타나 있다. 따라서 부족한 농약의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부족한 양만큼 해외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주로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교역현황은 <표>와 같다.

일본은 북한의 최대의 농약공급국이다. 공급되는 농약으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이 있다. 이들 농약이 1992년에는 5백16만 달러, 1993년에는 감소하여 1백49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매

년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량으로 보아 규모가 가장 큰 농약은 살충제 유기염소제와 비유기염소제이다. 이들 품목은 매년 적게는 약 1백만달러에서 50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초제와 살균제의 순으로 수출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살서제(취약)까지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수출하는 농약으로는 제초제가 수출실적이 탄력적이긴 하지만 가장 큰 규모이며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다음으로 살충제, 살균제(1991년만 수입)의 순으로 수입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8비탈론 연합기업소 내에 연간 8천~1만1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제초제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농약수입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완제품 농약이 아닌 농약제조 원료의 도입도 적은 규모이지만 이들 공급 국가들이 북한으로 수출하고 있다.

아무튼 북한의 내수용 농약은 현재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남북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검토해 볼만한 품목으로 보여진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전망

농산물 직교역시 북한측의 관심사항은 농산물의 제약재배와 남북한 쌍방간에 부족한 농산물의 교환과 종자·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자재와 농업기술 교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부문 협력전망으로는 농자재 부문인 비료·농약·농기계 공장의 합작건설 또는 노후화된 기존설비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협력 초기단계에서는 현

물을 구상교역방식으로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농자재 산업의 대북진출의 경우 첫째, 국내시장의 새로운 생산기지로써 그리고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둘째, 국내시장의 업체간 과당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셋째, 저임금 등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생산설비 등 유희설비를 이전함으로써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북한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농약을 고르게 수입하고 있다. 주요 공급국은 일본이지만 농약의 가격이 비싸 남한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농약의 경우 현재 남한에서는 공급과잉 상태로 북한으로 반출 가능하고 제품은 원제가 아닌 완제품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특히 북의 제조기술이 원시적이어서 농약 기술제공과 함께 합작투자도 가능하다. **농약정보**

북한의 국별 농약 수입 현황

(수량:톤, 금액:천\$)

국별	품목	1990		1991		1992		199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일본	살충제	309.4	1,326.3	1,108.6	4,591.2	920.2	5,151.6	149.0	810.7
	살균제	54	3.9	316	10.6	100.0	6.8	400.0	9.2
	제초제	91.0	347.2	11.6	64.5	-	-	105.0	668.6
중국	살충제	42.0	95.0	1.7	9	-	-	-	-
	살균제	-	-	30.0	120	-	-	-	-
	제초제	703.0	1,858.0	0.6	2	68.6	1,734	-	-

자료: 日本: 日本關稅協會, 「日本貿易月表」, 각연도.

中國: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海關統計年鑒」, 각연도.